

		<h1>보도자료</h1>		EAI 동아시아연구원
보도일시	2021.09.28. (화) 15:00 이후 (엠바고)	배포일시	2021.09.27.(월)	
담당자	동아시아연구원 윤하은 연구원 02-2277-1683(내선 208) hyoon@eai.or.kr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9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글로벌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 (대표 쿠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2021년 8월과 9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9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는 (1) 본 요약발표문 (2) 주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10월 2일 한국과 일본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개최하는 ‘제9회 한일미래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9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국 국민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요약

1. 상대국 호감도, 최악의 상황에서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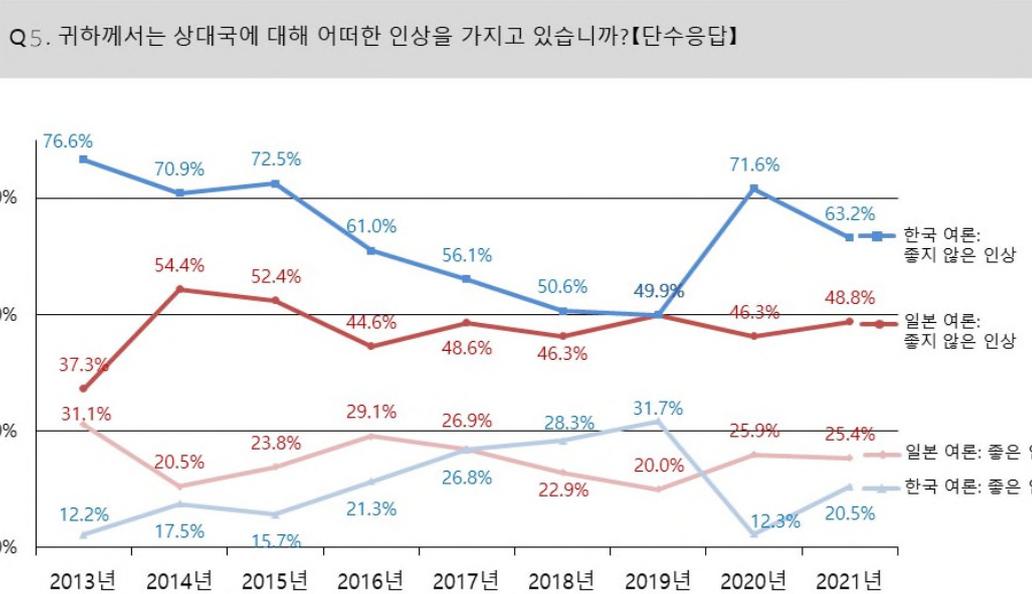
-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8.5%p 반등, 작년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
-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반등 추세 유지
- 호감도 반등은 장기 교착상태에 피로감을 느끼고
안보, 경제 사안 등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 양국 모두 호감도 반등 주도층은 청년세대(특히 20대)이며 비호감 주도층은 60대 이상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2020년 12.3%에서 2021년 20.5%로 상승하였고, 부정적 인상은 2020년 71.6%에서 63.2%로 감소하였다. 2019년 양국간 무역갈등과 지소미아 논란이 그대로 반영된 2020년 조사결과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15년 이후 증가추세였으나 (15.7%→21.3%→26.8%→28.3%→31.7%), 2020년 12.3%로 급락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15년 72.5%에서 2019년 49.9%로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71.6%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솟았었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긍정적 인상은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였으나 (29.1%→26.9%→22.9%→20%), 2020년 호감도가 5.9%로 반등을 나타냈고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모두 호감도의 세대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도세력은 청년세대인 반면 비호감도는 60대 이상에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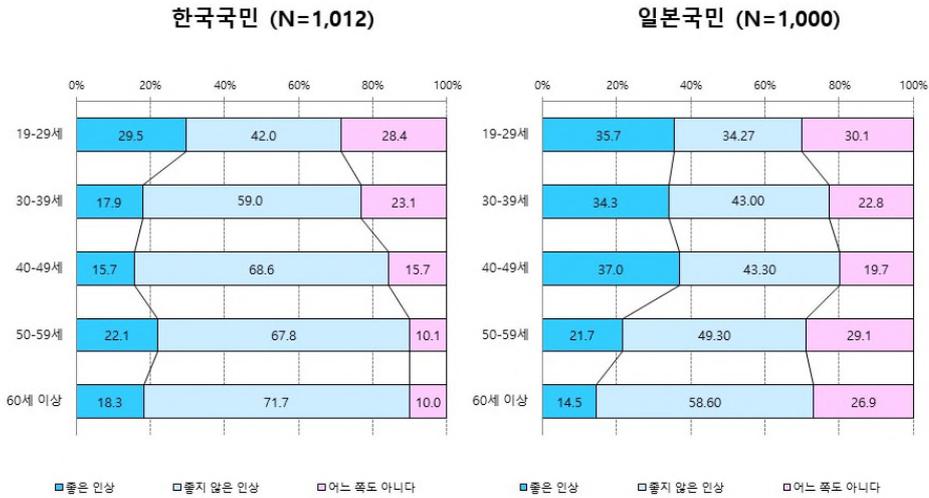
[그림 1] 인상 2013-2021 추이



Copyright(c) 2021 The Genron NPO and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2] 2021년 한국과 일본의 연령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Q5. 귀하께서는 상대국에 대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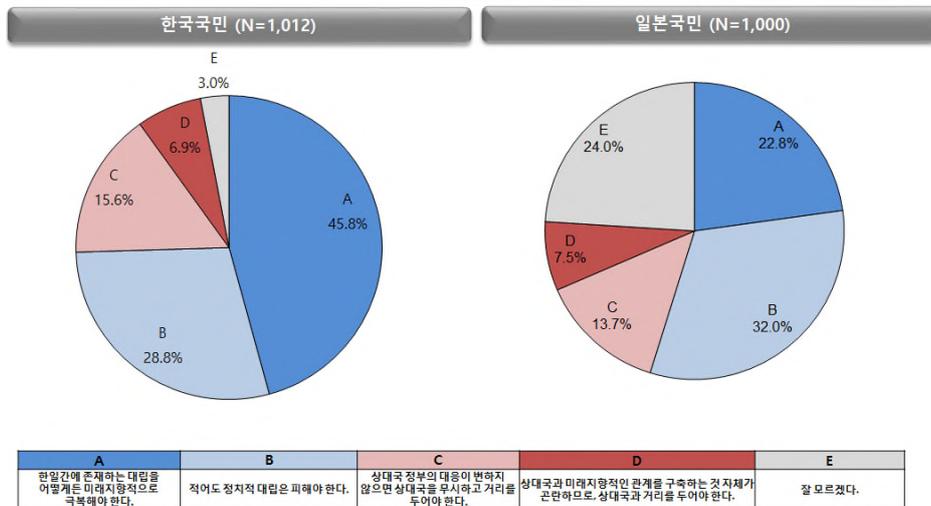
Copyright(c) 2021 The Genron NPO and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2.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을 원하는 한국측 여론, 강해졌다.

- 한국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 의지는 급반등, 작년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
-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이루어가면 역사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전망 늘어남(2020년 24.5% → 2021년 38.1%).
- 일본은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협력에 대해 냉담한 기조 유지

[그림 3] 양국이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취해야 할 입장

Q13. 양국은 앞으로 상대국(일본/한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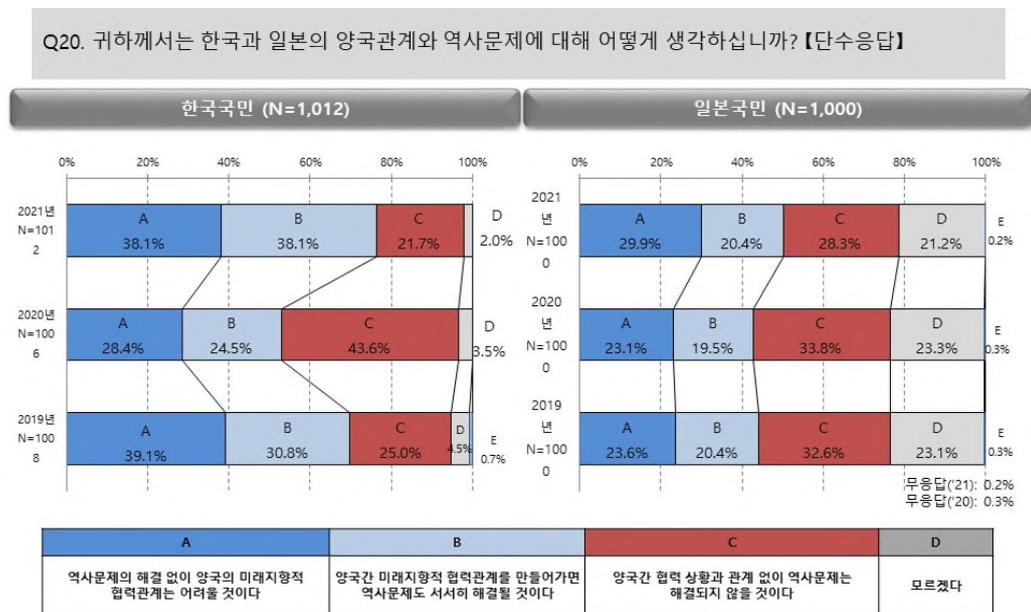


Copyright(c) 2021 The Genron NPO and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한국은 2019년 양국 간 무역갈등과 지소미아 논란으로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45.8%의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고, 적어도 정치적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28.8%)를 내비치며 전체적으로 압도적 다수인 74.6%의 국민이 현재 대립국면을 벗어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과반이 넘는 54.8%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양국관계 악화의 주원인인 역사문제에 대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안보, 경제, 보건, 기후변화 등)를 만들어가면 역사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전년도(24.5%)에 비해 14%p 늘어난 38.1%인 점, 또한 “양국간 협력과 관계없이 역사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는 43.6%에서 21.7%로 급감한 점을 보면 한국 측 여론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림 4]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3년 비교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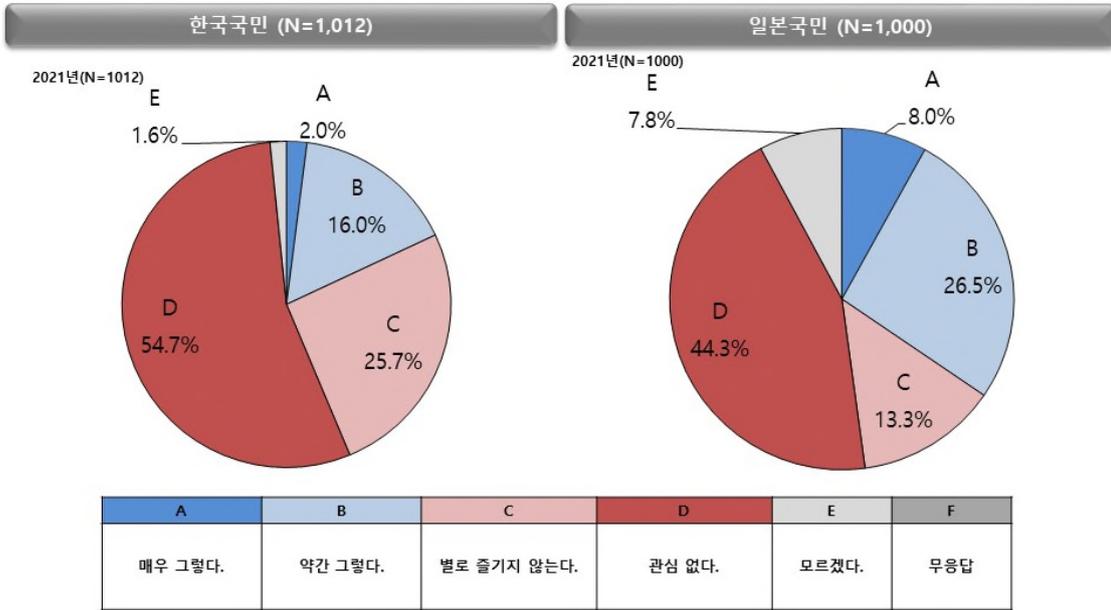
3.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층이 상대국 호감도를 견인하는 중심 세력

-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를 소비하는 층의 81.2%가 한국에 호감
- 한국의 경우, 일본 대중문화 소비층 67%가 일본에 호감
- 일본의 경우, 한류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히 높음
“64.6%가 한일관계가 악화되어도 한류 소비 변함없음”
- 대중문화 소비 주도층은 청년세대(MZ),
일본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10% 이상 높음

상대국의 대중문화 소비 여부가 상대국 호감도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일본 대중문화를 즐기는 국민 비중은 18%로 나타났으나, 그중 약 67%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10.4%)”,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56.6%)”)가 일본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 내 한국 대중문화 소비층은 응답자의 34.5%로, 그중 압도적 다수인 81.2%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25.8%)”,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55.4%)”)가 한국에 호감을 보였다.

[그림 5] 상대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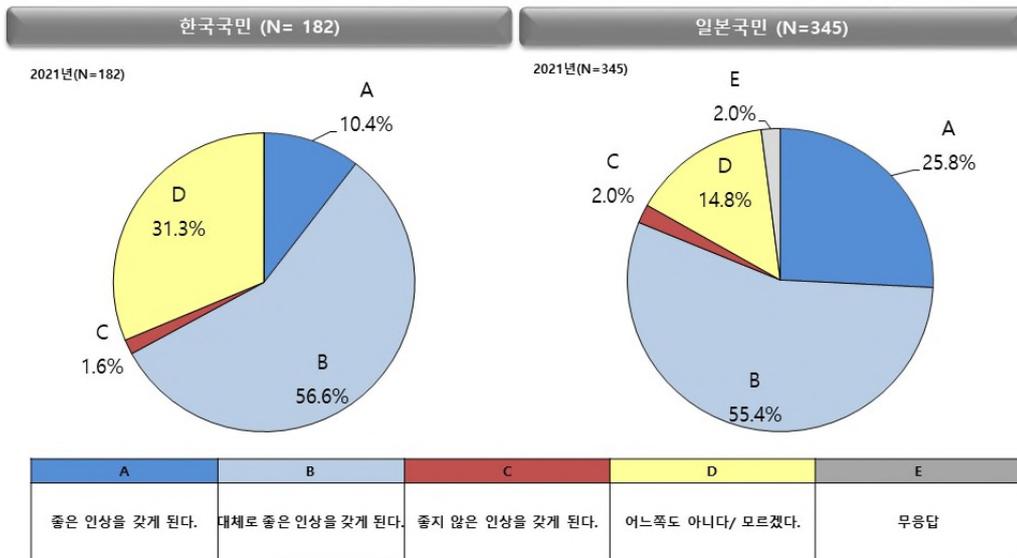
Q40. (한국) 귀하께서는 일본의 대중문화 (소설, 만가/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J-pop 등)를 즐기십니까?
(일본) 귀하께서는 한국의 대중문화 (K-pop, 드라마, 영화 등)를 즐기십니까?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6]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갖게 된 상대국에 대한 인상

Q40-a. 귀하께서는 상대국 (일본/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겨 소비하면 상대국 (일본/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됩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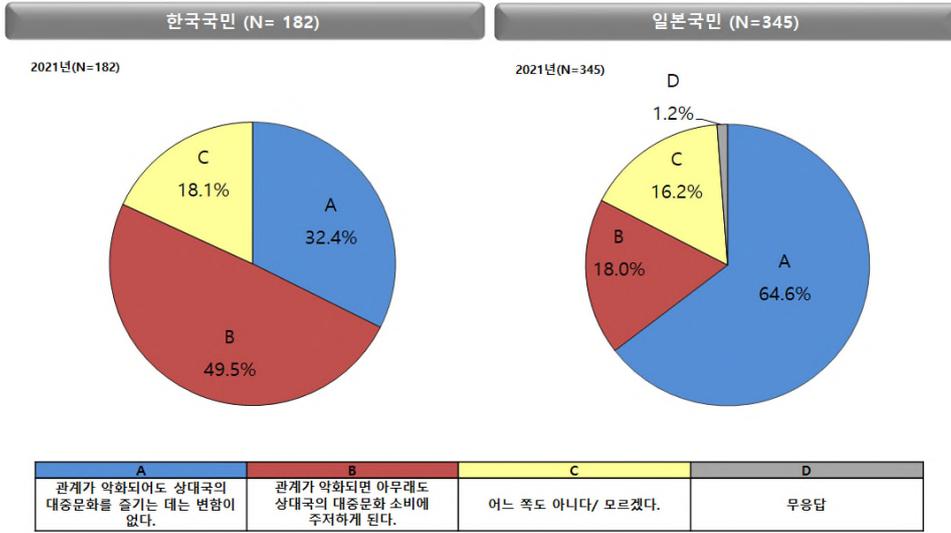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6 (Q40-a) 는 Q-40에서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라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된 결과임.

[그림 7]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 대중문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Q40-b.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귀하의 상대국 (일본/한국) 대중문화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까?【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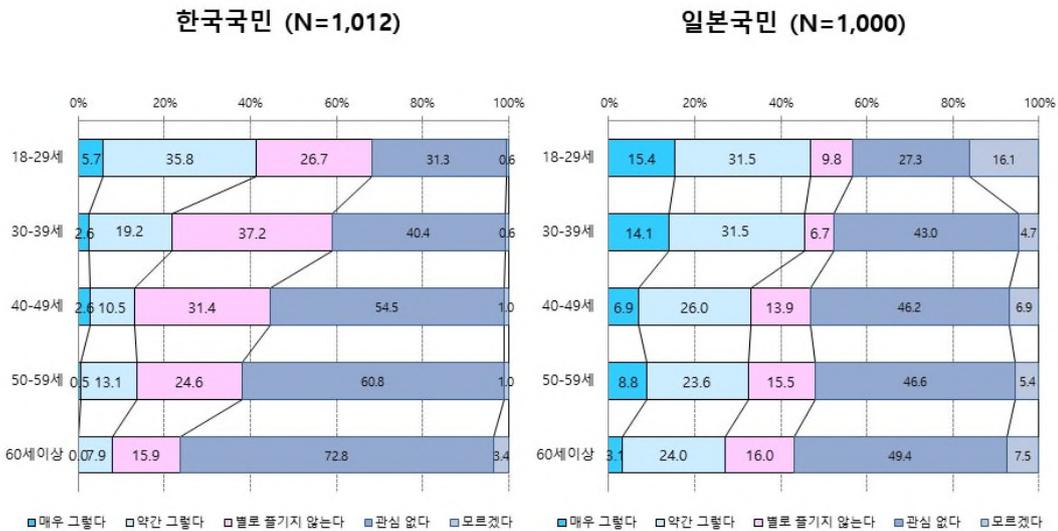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7 (Q40-b) 는 Q-40에서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라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된 결과임.

한국인의 49.5%가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아무래도 일본 대중문화 소비에 주저하게 된다”라고 답하며 한일관계 악화 문제와 일본 문화 소비를 따로 떼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수 이상(64.6%)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소신을 밝혀 한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여줬다. 양국 대중문화 소비 핵심 계층은 2030대이며, 일본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연령에 따라 상대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지 여부

Q40. (한국) 귀하께서는 일본의 대중문화 (소설, 만가/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J-pop 등)를 즐기십니까? (일본) 귀하께서는 한국의 대중문화 (K-pop, 드라마, 영화 등)를 즐기십니까?



Copyright(c) 2021 The Genron NPO and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4. 韓, “일본과 안보, 경제 협력을 원한다” - 중국 요인이 작동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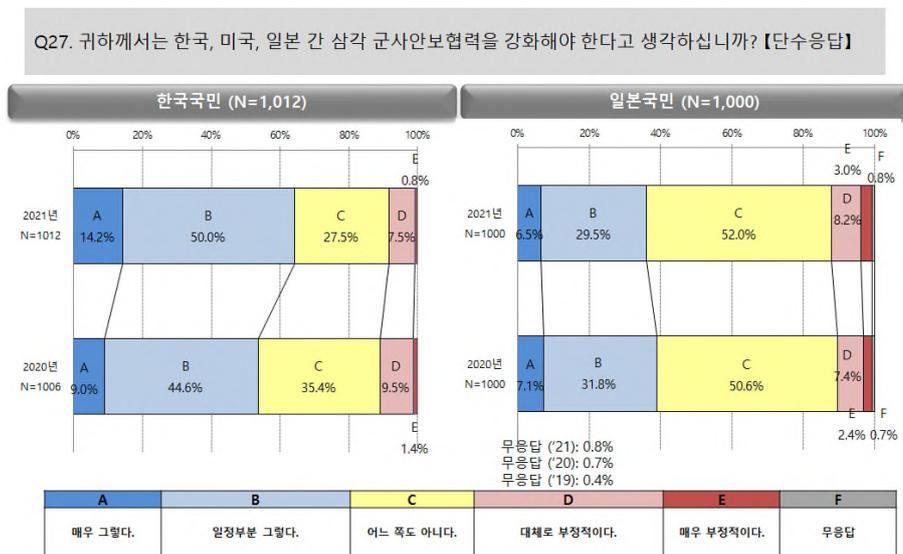
-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및 쿼드 가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
-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식 하락 (44%→38.6%) vs.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식 급증(44.3%→61.8%)
- 한국의 대중국 여론 최악 상태(호감도 10.7%로 대일 호감도의 반토막 수준),
- 중국 위협인식 및 비호감도 증가와 한미일 협력 및 한일 협력 지지 간의 상관관계

한국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0년 53.6%에서 2021년 64.2%로 증가하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가 35.4%에서 27.5%로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어느 쪽도 아니다”란 입장이 2020년 50.6%에서 2021년 52%로 소폭 증가하였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2020년 38.9%에서 2021년 36%로 감소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인식 변화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든 전년도 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일종의 V자 형태(V-Shape)를 보인다. 한국인의 대일 인식이 2019년도 조사 결과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요구도 다시 높아졌다(34.3%(2020) -> 43.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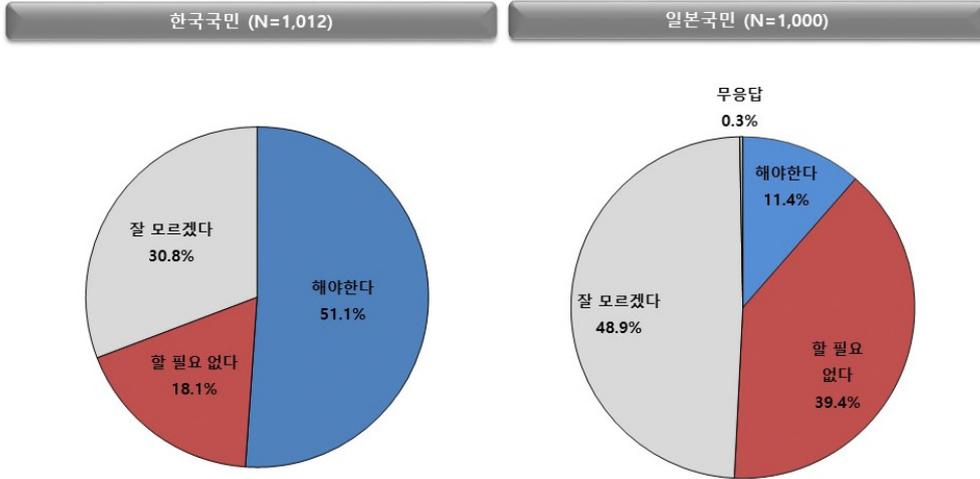
일본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원한다는 한국인의 인식 변화에는 한국의 대중국 여론 악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림 12]에서 보듯, 2021년 한국의 대중국 여론은 대일 호감도의 반토막 수준인 10.7%로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점점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43.8%)’라는 이유를 대중 비호감 인식의 원인으로 답한 반면,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때문에(65.2%)”라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식이 44.3%에서 61.8%로 급증하였고([그림 15]), 일본, 미국,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과반수에 달했다(51.1%)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분야로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 또한 언급되었다. 한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에 강경대응해야 한다(61%)고 답하였다.

[그림 9]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그림 10] 쿼드(Quad)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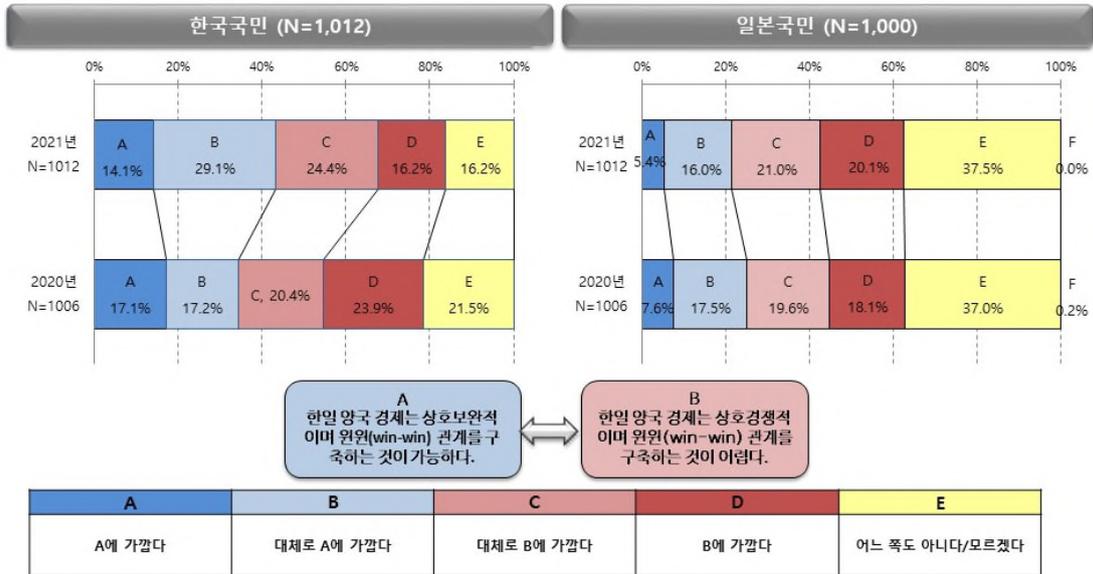
Q25. 최근 일본, 미국, 호주, 인도는 쿼드 (QUAD)라고 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1] 한일 간 경제관계에 대한 의견

Q33.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A와 B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2]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상

K1. 귀하께서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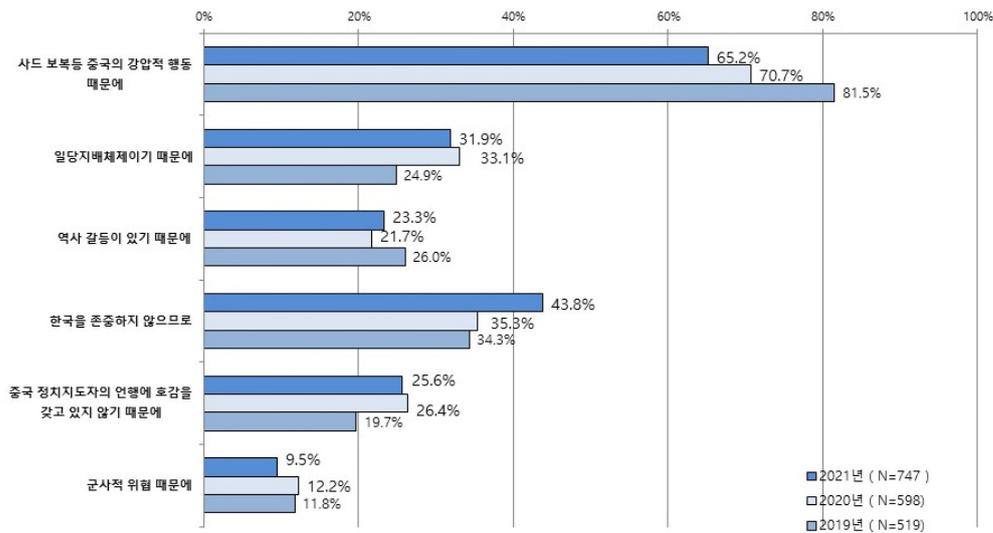


A	B	C	D	E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어느쪽도 아니다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3] 한국이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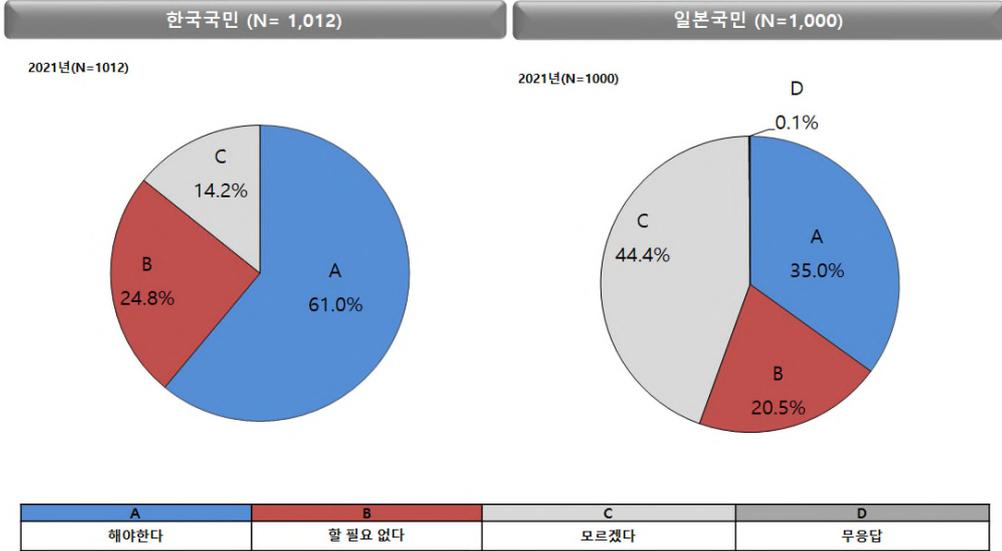
K1-b. (K1에서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또는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4]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참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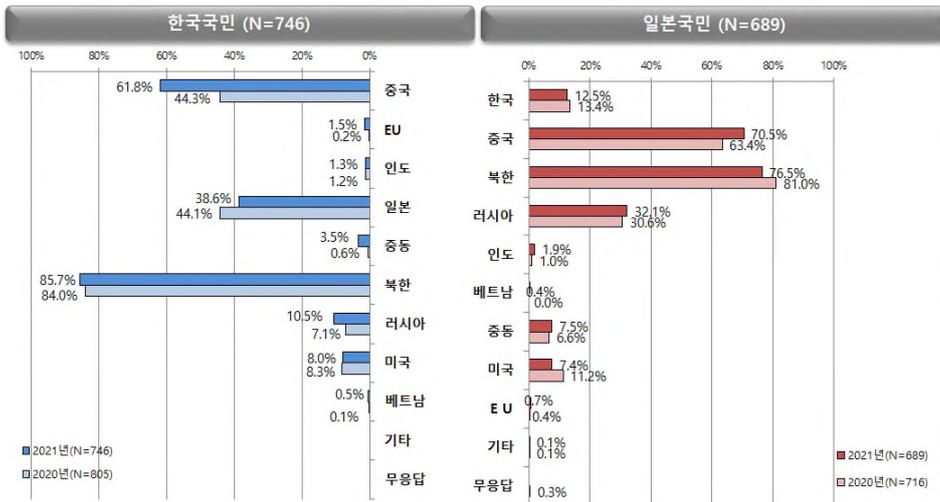
Q47. 현재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에 대하여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국(한국/일본)도 이러한 국제정세를 따라 강경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단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5]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및 지역

Q38-a.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국(한국/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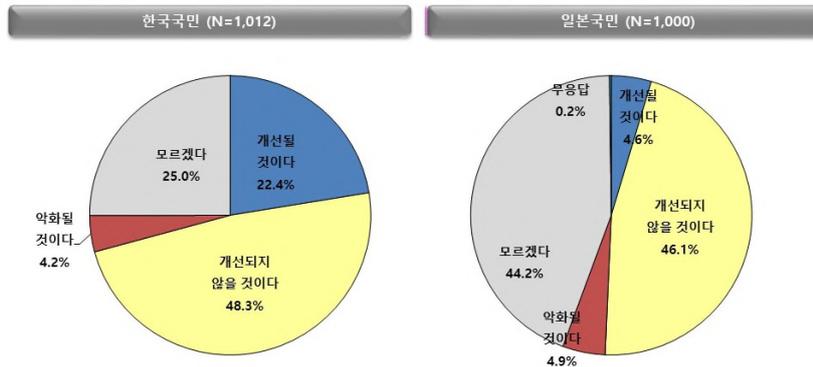
그림 15는 Q38 (귀하께서는 자국(한국/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나 지역이 있습니까?)에서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 (한국은 2021년 73.7%, 2020년 80.0%; 일본은 2021년 68.9%, 2020년 71.6%)에 한하여 조사된 결과임.

5. 차기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해주리란 기대 낮음

- 한국의 차기 정부/대통령에 대한 기대치 - “개선되지 않는다” 韓 48.3% 日 46.1%
- 일본의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치 - “개선되지 않는다” 韓 52.3% 日 59.7%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 낮음 - “빠른 시일 내에 할 필요 없다” 韓40.7% 日38.2%

[그림 16] 한국 내 신정부 출범과 한일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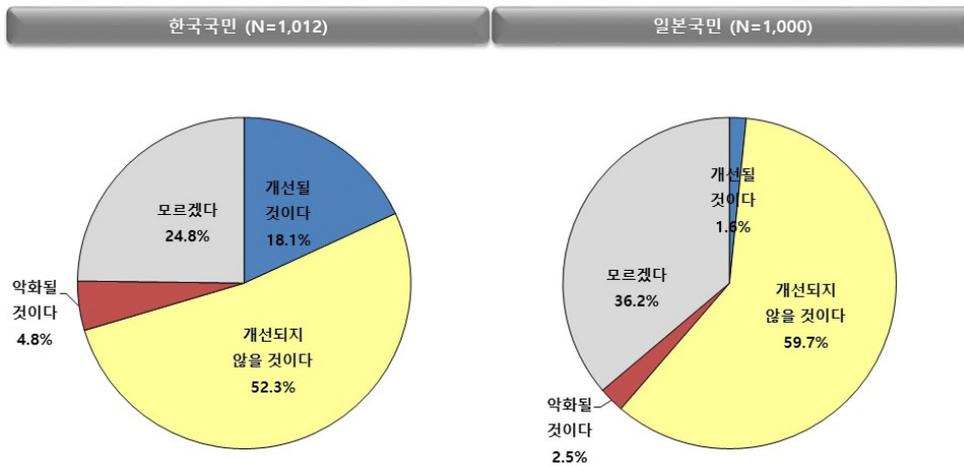
Q22.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귀하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7] 일본 내 신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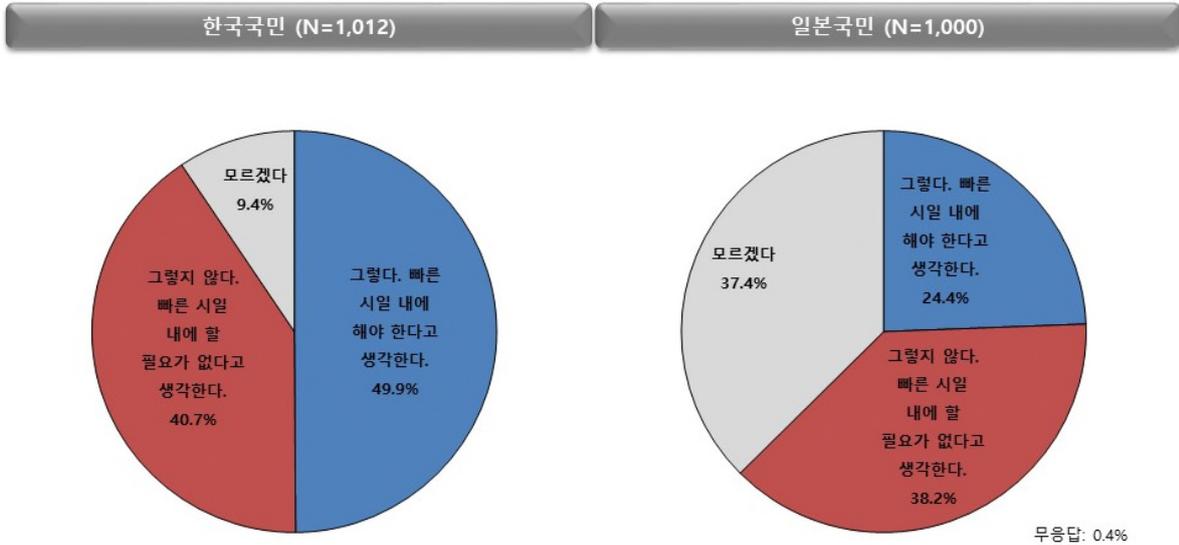
Q23. 2021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 총선 후에 일본 정부에 의해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그림 18] 한일 정상회담 개최

Q18. 한일 간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Copyright(c) 2021 East Asia Institute and the Genron NPO All Rights Reserved.

한일 모두 차기정부의 한일관계를 개선에 낮은 기대치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48.3%가 차기 정부에도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답했으며 동일한 답변이 일본에서는 52.3%에 달했다. 정상 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의 비중이 한일 각각 40.7%, 38.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일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협력에 대한 기대치는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